

‘청년’ 연애학 개론의 정치성과 최인호 소설*

이선미*

1. 『별들의 고향』의 대중성과 사회
2. ‘연애’와 문화, 그리고 서술자의 독자소통 감각
3. 서술자의 연애문화 분석 노하우: 1970년대 안에 1960년대 있다
- 『선데이 서울』(1968),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1966)의 문화와 1970년대 청년
4. 『별들의 고향』의 문화적 의미와 민주주의적 상상력

국문요약

『별들의 고향』은 수많은 해석을 낳았지만, 쉽사리 깰 수 없는 ‘이례적인’ 흥행 기록에 관해서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공감한다. 『별들의 고향』의 대중적 인기는 대중문학의 서사문법을 따르다기보다는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리얼리티에 집중하는 작가의 태도, 즉 독자와의 소통 감각을 지니고서 증계하듯이 연애문화를 분석하여 ‘지식’으로 전달하는 서술자로 인한 부분이 큰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경아라는 여성인물이 남성 판타지를 적절하게 재현했다는 점을 과소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남성 판타지로서 여성인물에 초점을 둔다면, 오히려 너무 일반적인 대중서사 관습이어서 ‘이례적’이라는 점을 해명하기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최인호 소설을 비롯하여 1970년대 청년 작가들의 대중적 성공은 일반적인 대중소설의 서사관습과는 다른 무엇을 동원해야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은 위약적인 서술자의 대화적 태도 속에 내재된 독자와 공감하는 소통의 감각으로 인해 독자 대중의 삶의 문제를 집약하는 리얼리티를 실현할 수 있었다. 최인호 소설에서 ‘연애’는 독자와 소통하는 방식으로 채택된 문화 풍속이다. 그리고 이 ‘연애’는 단순히 남녀의 연애상황을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문화’로서 다루어진다.

단순한 연애소설이 아닌, 연애를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분석하는 서술자는

*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의 지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6).

** 동국대학교 BK 연구교수.

연애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연애를 ‘지식’으로서 소비하도록 이끌어준다. 『별들의 고향』은 이 청년들이 연애라는 풍속사적 상황을 탐색함으로써, 이전 세대의 근대화적 삶에 내재된 삶의 문제를 공론화하는 청년문화백서로 역할한다. 1970년대는 1960년대의 교양주의가 권위주의, 엄숙주의로서 사회문화를 규격화하고 있었다. 1970년대 청년문화적 감수성은 이전 시기의 문화적 유산과 연결되는 사회 규범과 극심한 갈등을 일으키고, 위악적 자의식을 낳기도 한다. 착하고 때문지 않은 순수한 여성인 경아는 이런 복합적인 자아를 볼 수 있게 하는 투명한 창으로 역할하고 있으며, 소설의 서술자는 연애평속으로 얽혀 드러나는 모든 상황을 분석하고 해명해주는 문화 연구자로서 독자와 공감하고 소통하는 안내자 역할을 수행한다. 『별들의 고향』이 이례적인 상업적 성공을 거둔 것은 경아에 투영된 남성들의 판타지로 설명할 수 없는, 남성 서사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1970년대 청년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이 삶의 문제를 젠더 차이가 극심한 연애문화를 통해 공론화할 수 있었던 서술자의 인류학자 같은 역할이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최인호, 별들의 고향, 대중성, 서술자, 독자소통감각, 연애학, 지식, 남성 서사, 연애평속, 청년문화, 젠더, 민주주의)

1. 『별들의 고향』의 대중성과 사회

‘청년’이 문화적 주체로서, 시대의 특성인 듯이 호명된 것은 1970년대가 유일할 것이다.¹⁾ 1960년대 중반부터 ‘청년’은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변화의 핵이었다. 1968년 유럽 대학생들의 사회참여가 있었고, 미국의 히피운동과 베트남전쟁 반대운동, 흑인 인권운동이 이 청년운동의 한 양상이다. 정치 뿐만 아니라, 비틀즈가 출현하여 서구 대중문화의 흐름을 전면 조정할 것도 이 시기이다.²⁾ 이런 흐름 속에서 1970년대 한국의 청년문화도 대

-
- 1) ‘청년’은 근대적 역사를 시대적으로 구분할 때마다 ‘주체’로서 호명된다. 개화기 ‘청년’담론이나 4.19 이후 대학생/청년담론이 대표적이다. 이 때 청년은 정치적이며 계몽적인 주체로 호명되고 담론적으로 구성된 청년에 가깝다. (이기훈, 『청년, 근대의 표상 - 1920년대 ‘청년’ 담론의 형성과 변화』, 『문화과학』, 2004.3 참조) 이에 비해 1970년대의 청년은 문화적으로 등장한 주체이지만, 공적 담론장에서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고 대중문화의 기표로 다양하게 해석된 경향이 있다. 1970년대 청년문화는 사회적으로 담론화된 양상 만으로도 구체적인 실상과 담론화 과정이 해명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2) 신현준은 존레논 평전을 통해 비틀즈의 문화사적 의미를 주목하고 있다. 신현

중문화의 거점으로서 새로운 문화적 흐름을 주도했으며, 그를 둘러싼 다양한 담론을 통해 여러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대중문화와 관련된 청년의 호출은 1970년대가 시작되면서 전면적이었다.

그 청년문화의 중심은 단연 통기타 음악문화일 것이다.³⁾ 그리고 문화사적으로는 김민기를 중심으로 기억된다. 그렇지만, 이것은 실상보다는 담론적 과장과 더불어 ‘기억’ 속에서 재구성된 결과에 가깝다. 김민기는 1970년대 청년문화와 관련해서 가장 복잡하게 얽혀 있고, 분명치 않게 걸쳐있는 존재이다. 김민기는 청년문화를 추동하는 힘으로 작용한 바 있지만, 청년문화의 중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1970년대 후반의 조세희와 같은 소설가와 함께 지식인의 현실참여 감각과 미의식이 현실을 전유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논의할 여지가 더 많은 ‘문화인’이다. 그런 까닭에 1970년대보다도 1980년대 초반, 이데올로기적 급기에 도전하는 담론들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유행처럼 갑자기 부각된 면이 더 많은 작가로 보인다. 즉, 억압된 것들이 붓물처럼 분출하듯이, 1980년대 초반에 갑자기 조명되어 청년문화로 재규된 경우라 할 것이다.⁴⁾ 실제로도 구체적인 활동보다는 상징으로 떠돌았고, 담론적 존재로 더 영향을 끼쳤던 김민기의 삶처럼,⁵⁾ 청년문화를 대표하는 김민기의 이미지는 1970년대보다는 1980년대 청년문화를 기억하는 과정에서 덧붙여진 경향이 강하다.

1970년대 청년문화와 통기타 음악의 관계는 오히려 ‘포즈’와 스타일의 문제였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 포즈와 스타일의 정신적 연원은 어디서 실감되는가? 통기타와 청바지와 장발이라는 스타일로 거리를 활보하는 청년문화의 주역들에게 어떤 행동과 말과 의식과 내면을 심어준 최인호 소설이 김

준, 『레논평전』, 리더스하우스, 2010, 3장 참조

- 3) 이혜림은 청년문화 현상을 감수성의 공동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명한다. 청년문화가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문화공동체적 경험의 사회적 확산 속에서 구체화되었다는 점을 논증한 바 있다. 이혜림, 「1970년대 청년 문화구성체의 역사적 형성과정」, 서강대 석사, 2002 참조
- 4) 김창남, 『대중문화와 노래운동, 그리고 청년문화』, 한울, 2004 참조
- 5) 김민기는 먹고살기 위해 했던 많은 일들이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되어 과장되고 영웅이 되고, 그 때문에 원인없이 시련을 겪기도 한 것을 여러 차례 구술한 바 있다. 김창남 엮음, 『김민기』, 한울, 2004 참조

민기 보다 더 직접적으로 관련있을 것이라는 가설도 가능하다. 이런 전제 하에서는, ‘청년문화’를 거론하기 위해서 최인호 소설이 가장 먼저 탐색되어야 할 것이며, 그 중에서도 청년문화를 대중적 관심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계기로서 『별들의 고향』은 중요하게 분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인호는 1972년 『조선일보』에 『별들의 고향』을 연재한다. 1967년 단편 「견습환자」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문단활동을 시작한 신예작가 출신으로 어린 나이에 이례적으로 중앙일간지의 연재소설을 맡아 연재초기부터 화제가 된다. 그러나 신예작가의 기용이라는 우려를 뒤로 하고, 『별들의 고향』은 장안의 화제가 될 정도를 인기를 끌며, 단행본이 나오자 최고의 판매기록을 세운다. 곧바로 최인호의 고등학교 동기인 이장호의 영화 데뷔작이 되어 최고 흥행 영화가 되기도 한다. 『별들의 고향』은 1970년대를 상징하는 대중적 인기작품으로 평가하기에 손색이 없을 만한 대표작품으로서, 1970년대에 급격히 성장한 대중문화 시장의 가장 비중있는 문화컨텐츠였다.⁶⁾ 그리고 이 대중적 지지에 의한 문화적 사건을 계기로 최인호는 당대를 대표하는 문화계 인사로서 자리잡는다.

『별들의 고향』을 계기로 이루어진 다양한 담론, 즉 최인호의 문학적 성과를 놓고 이러저러하게 혹평과 호평의 극단을 오기는 평론의 양상이라던가,⁷⁾ 『별들의 고향』을 통해 대중문화의 성 상품화 경향이나 통속화 경향이 노골화되었다는 등의 논의를 접고 생각하더라도, 거대한 산맥처럼 1970년대 출판물을 비롯한 대중문화 관련 ‘시장’을 휩쓸었던 이 힘의 실체는 굳건히 위용

6) 1974년 청년문화 논쟁의 계기가 된 김병익의 글에서 그는 청년문화의 대중적 이상으로 최인호, 이장호, 양희은, 김민기, 서봉수, 이상용을 꼽았다. 이는 이후 저널리즘을 통해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지만, 이렇게 꼽힐 정도로 최인호는 당시 대중스타였다. 최인호는 1974년 4월 24일부터 한국일보의 수요일에세이란을 맡아 수요일마다 글을 실는데, 지면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연재가 시작되기 전, 신문 1면에 드디어 최인호의 글이 연재된다고 기대하라는 짧고 광고가 나갈 정도로 당시 가장 잘 팔리는 문화계 인물이었다. 김병익, 「오늘날의 젊은 이상」, 『동아일보』, 1974.3.29, 5면 참조.

7) 최인호의 소설을 논하는 거의 모든 글들이 『별들의 고향』을 둘러싼 양 극단의 논의를 전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을 과시한다.

그렇다면, 이 힘의 실체는 1970년대라는 당대적 삶의 문제를 직접 건드리고 있을 것이고, 특히 이 문화적 현상에 가장 열렬한 반응을 보낸 집단으로서 청년/대학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 힘의 실체를 정면으로 대면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당대의 사회문화적 탐색과 통하는 일이 될 것이다.

통기타 가수들의 음악이 청바지 패션과 함께 거리를 누비는 패션 아이টে็ม으로 부상하던 때, 최인호 소설은 이 청년들의 세부적인 생활적 디테일을 제공하고, 내면의 심리를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패션 아이콘이 있었다면, 그 패션에 형상을 부여하는 ‘의식’의 역할을 최인호 소설이 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4년 최인호는 스스로 청년문화선언이라는 글을 『한국일보』에 발표하여, 청년문화를 옹호한다.⁸⁾ 소설가 최인호는 『별들의 고향』 소설가일 뿐만 아니라, 청년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인으로 인식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은 청년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적 아이টে็ม으로 비약한다.

그런데 이 과정은 그리 단순하지도 순탄하지도 않았다. 청년문화 논쟁이 가속화되면서 실제 청년들이 주체가 된 대학언론 중심의 대학담론에서 청년문화적 정체성이 거부되고 민족 주체성 논의로 진전되면서 ‘청년문화 논쟁’은 본래의 문제의식을 상실하고 만다. 그리고 이런 논의의 와중에 『별들의 고향』도 이 논쟁에 휘둘려 곱해된 측면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청년문화를 부정하는 청년/대학생들에 의해 그 논의의 생산성은 묻히고, 논의는 이전 투구가 되어 마무리된다.⁹⁾ 따라서 『별들의 고향』이 신문에 연재되고 곧바

8) 최인호, 「청년문화 선언: 최인호의 수요일 에세이」, 『한국일보』, 1974.4.24 참조

9) 논쟁의 계기가 된 글을 썼던 김병익은 자조적인 논조로 이 논쟁이 생산적인 당대 사회진단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말꼬리 잡기의 과정으로 번져 이전투구식이 된 점을 상세히 정리하면서 논쟁을 마무리지을 수밖에 없는 심정을 내비친 바 있다. 「청년문화와 마스크」, 『문화와 반문화』, 문장, 1979 참조. 이 논쟁의 과정과 김병익의 의도는 오랫동안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된 적이 없다. 이후 『바보들의 행진』이 대중문화 현상을 재현함으로써 그 문화의 실상을 구체화하는 점을 들어 최인호 소설을 대중문화 현상으로 파악한 송은영이 청년문화 논쟁의 전개와 저간의 사정을 정리한 바 있다. 청년문화의 사회사적 의미와

로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세간에 화제가 되었을 당시의 논의도 점점 퇴색한다.

『별들의 고향』은 연재시부터 인기를 얻어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으며, 출판계의 이례적 사건이 될 정도로 주목받았던 당대의 화제작이다. 작가가 스타가 되어 곤혹을 치를 정도로 당대의 화제가 되었던 작품이라고 한다.¹⁰⁾ 그리고 작가는 이런 인기 때문에 사회담론의 중심에 서게 되고, ‘상업주의 작가’, 또는 ‘호스테스 작가’라는 신조어를 달고다니면서¹¹⁾ 문단의 비난을 받는다. 『별들의 고향』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담론상으로는 존재가 급속히 축소되어 버리지만, 그 후로도 인기는 식지 않고 베스트 셀러의 명성을 유지한다.

청년문화 논쟁이 1974년 대중언론을 중심으로 공론화되고 이후에 『별들의 고향』을 둘러싼 담론적 양상도 번져나갔다고 생각해보면, 『별들의 고향』이 발표 당시 어떻게 읽혔는가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안일 것이다.

『별들의 고향』 단행본의 표지에는 “조간을 기다렸던 즐거움을 아는가! 비늘 번득이는 새로운 언어 - 신감각의 터치로 반세대의 젊은 군상들을 울려온 『별들의 고향』…… 이 슬프고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아는가! 거리의 네온에서, 지하도에서, 육교에서, 혹은 넘치는 술잔에서 요정처럼 나타났다 스러지는 <경아>는 바로 당신이며, 당신들의 연인이다.”¹²⁾라는 광고 글귀와 함께 유럽 청년문화 시위의 한 장면이 표지 날개를 장식하고 있다. 『별들의 고향』은 최인호를 비롯한 청년문화 논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작가를 비롯

최인호 소설의 대중문화적 성격을 본격적으로 논의의 선상에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최인호 연구나 1970년대 청년문화 연구를 새롭게 진전시킨 연구이다. 송은영, 「대중문화 현상으로서의 최인호 소설」, 『상허학보』15집, 2005.8. 허수 역시 한국의 논쟁사 100년을 정리하는 기획서에서 청년문화 논쟁을 정리한 바 있고 허수, 「청년문화 논쟁」, 『논쟁으로 본 한국 100년사』, 역사비평사, 2000. 이후 청년문화에 관한 연구는 이 기존 연구를 답습하는 경향이 있다. 주창운, 「1970년대 청년문화 세대담론의 정치학」, 『언론과 사회』, 2006 가을 참조.

10) 한 연구자가 1972년은 『별들의 고향』으로 출판계가 술렁거렸다고 말할 정도다. 이임자, 『한국출판과 베스트셀러:1883~1996』, 경인문화사, 1999 참조.

11) 우찬제, 「자전커타고 바다 건너기」, 『달콤한 인생』, 문학동네, 2002.

12) 『별들의 고향』(예문관, 1973) 표지날개 광고문안.

한 신문연재 당시의 독자들의 반응과 여러 가지 문화적 담론 속에서 청년문화의 “반세대 의식”으로 의미부여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평단의 냉대와 대학담론을 주도하는 대학 언론사의 청년담론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부정되었던 것에 반해서, 상업적인 시장구조 안에서 위풍당당하게 오랫동안 존재를 증명한다.

이 글은 평단이나 대학담론의 무시나 혹평과 상관없이 당대 문화를 주도했던 독자의 입장에서 『별들의 고향』을 독해함으로써 당대 청년문화의 실상에 다가가 보고자 한다. 일단, 수 많은 담론이 끼어들기 전, 판매기록이라는 ‘실체’에서 논의를 시작해보고자 한다. 『별들의 고향』이 당대 ‘청년’의 어떤 부분과 만나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대중적 지지를 얻게 되었는지를 해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최인호 소설의 대중성과 청년서사가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어떤 의미망을 구축하고 있었는지도 따져보고자 한다.

2. ‘연애’와 문화, 그리고 서술자의 독자소통 감각

『별들의 고향』은 이제 막 스무 살이 된 경아가 여러 명의 남자를 만나면서 연애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사랑하거나 버림받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연재소설에서처럼 이 각각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듯 같으면서, 연작 형식으로 경아의 삶을 구성한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남자와의 사랑 이야기는 『별들의 고향』이 독자들의 관심을 얻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첫 번째 이야기에 해당하는 첫 번째 남자와의 만남은 바로 당대 청년 남녀들의 연애문화를 그대로 재현한다는 점에서 연애하는 모든 청춘남녀들의 관심사를 자극하면서 독자와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보인다. 이때, 독자와 소통/공감하려고 말 건네는 포즈의 서술자는 연애정보를 전달하는 핵심 인물이며, 이 소설이 일반적인 연애소설과 달리 연애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로 소통되게 한다.

『별들의 고향』의 첫 번째 이야기는 평범한 여고생이었던 경아가 어려운

집안 환경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이 되지만, 일 학년을 다니다가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대학을 중퇴하고 돈을 벌기 위해 회사에 다니게 되면서 회사 동료인 영석을 만나 연애하고 헤어지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어느 연애와 다를 바 없지만, 연애를 잘 알고 있는 서술자가 나서서 경아와 영석의 행동과 심리를 설명하거나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연애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를 ‘지식’으로서 전달하는 형식을 취한다. 즉 『별들의 고향』의 서술자는 연애를 해설하는 가이드처럼 이 남녀의 연애과정을 상세하게 중계하고 해석함으로써 연애의 상황이나 연애하는 인물의 심리에 빠져들게 하지 않고, 연애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각각의 행동은 연애하는 남녀의 어떤 심리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지식’으로서 알려준다.

그 이후부터 둘은 소위 남들이 말하는 연애라는 경지에 몰입하게 되었다.

연애에는 또렷하지는 않지만 어떤 정석(定石)이라는 것이 있다.

다방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고, 개봉관에서 영화 구경을 하고, 다시 나와 저녁 식사를 하고, 화제라야 무슨 책을 감명깊게 읽었어요, 무슨 빗장을 좋아하세요, 영화배우 누굴 좋아하세요 그래도 할 이야기가 없으면 우리 동네 옆집 개가 강아지를 낳았는데 하는 식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지는 제일기가 지나면, 처음엔 남자 앞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서도 화장실이라는 느낌이 주는 불결감 때문에 화장실에도 못가고 꼬박 몇 시간을 건디는 초인적인 제일기에서, 그래도 태연스레 사람인 바에야 가끔 화장실에도 들를 수밖에 없다는 모습으로 어색하지 않게 자리를 일어날 수 있는 제일기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 제일기의 증상은 공연히 한밤중에 잠이 깨면 상대방에게 사랑하는 경아에 게리는 편지를 쓰게되고, 낮 두시 회사 점심 시간에 편지를 썼으면서도 그럼 이밤 안녕히 주무십시오, 지금은 밤 세시 오분입니다라는 따위의 능청을 떠는 시기인 것이다.

이 제일기에 접어들면 바야흐로 연애는 본격적으로 무르익어 어두운 거리에선 팔짱을 끼게되고, 더듬더듬 장님 점자 더듬듯이 영화관에 들어서면 여인의 손을 잡으려 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일기가 지나고 나면 뚜렷이 할 이야기가 없어지고, 만나도 신문이나 읽게 되고, 공연히 처음엔 턱밑의 사마귀도 매혹적으로 보이던 것이 이상하게도 눈에 거들리게 되고, 친구의 애인과 비교하고는 어쩐지 밀진 기분이 드는 제삼기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 제삼기에 남자는 느느니 하품이요, 없느니 돈이어서 언젠가는 둘이 만나려면 이 친구에게 몇 백원, 저 친구에게 몇 백원 꾸어 최소한도의 자금을 구비하던 것

이 이 즈음엔 숲세 커피값만 달랑 들고 나와, 나머지는 여인에게서 충당하는 도둑 심보가 고개를 드는 시기인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면 바야흐로 연애사관학교 졸업반인 제사학년에 진급하는데, 이 시기는 마주앉은 여인의 젓가슴 위치가 불쑥불쑥 들어오고 여인이 발을 포개고 앉았을 때 그녀의 짧은 치마에 가리운 다리 안쪽이 눈이 시도록 눈에 차오는 시기가 오는 것이다.

그리하여 남자들은 이 무렵엔 오로지 여인의 육체적인 것에만 눈이 벌개져서 반찬투정하는 애처럼 만날때마다 키스를 요구하는 법인데, 이 시기가 지나야만 비로소 연애는 결혼이라는 곳으로 직행되는 것이다.

여기에 영석도 예외는 아니었다. 둘이 알게 된 육개월이 지난 후부터 영석은 경아에게 키스를 요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¹³⁾

서술자는 연애에 관해서 잘 알고 있으며, 연애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적 관습을 잘 알고있다. 서술자는 이들의 연애를 한치도 아름답게 그리지 않는다. 연애가 결혼에 이르는 과정을 찬찬히 사실적으로 묘사할 뿐이다.

자신의 성을 과감하게 드러내며 자유로울 수 있었던 1960년대 후반 이후의 청년/대학생 남성들은 길거리에서 자유롭게 여자를 살 수 있었다.¹⁴⁾ 더 이상 성욕은 부끄러운 치부가 아니었다. 그런 1970년대 초반의 청년들이 여자에게 관심을 갖고 연애를 상상하며, 그 여성을 상대로 성적 상상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13) 최인호, 『별들의 고향 上』, 예문관, 1973, 82-83면(이하 면수만 표기).

14) 영석이 술취한 채 탄 버스에서 경아와 처음 만난 날 둘은 중간에 내려서 같이 걷게 되는데, 경아는 영석을 두고 먼저 간다. 가는 경아를 아쉬워 하며 영석은 급방 돌아서서 거리의 여자와 흥정을 하고는, 흥성거리며 그 여자를 뒤따라 골목으로 들어간다. 영석이 역시 이 시대 평균적인 남성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연애서사에서 사랑의 주체로서 남성 인물을 평균적인 비무함을 지닌 인물로 그린 경우는 대중소설에서는 흔치 않다. 1950년대 대중소설을 대표하는 정병석이나 박계주를 비롯한 여성작가의 소설들에서 남성 주인공은 무조건 가장 좋은 덕목을 두루 갖춘 완벽하게 친절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영웅적으로 이상화되는 인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인물을 통한 사랑이야야 낭만적인 연애서사가 가능할 수 있기에 이런 인물은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최인호 연애소설의 남성인물은 이런 식의 영웅성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점에서 대중소설의 문법을 따르고 있지 않다.

영석은 그런 점에서 너무나도 평범한 1970년대 도시의 미혼남성, 즉 청년이다.¹⁵⁾ 영석은 연애를 하는 남성이지만, 그 영석의 연애는 헌신적인 낭만적 사랑과는 상관없다. 또 서구 고전음악을 같이 감상하는 우아하고 엄숙한 이상적 남녀의 교제도 아니다. 영석의 연애는 손 잡으면 키스하고 싶고, 키스 하면 맨살을 만지고 싶고, 급기야는 허름한 뒷골목 여관방을 전전하다가 사기꾼 같은 무허가 신부인과 의사앞에서 다리를 벌리고 죄지는 듯이 고통을 참아야 하는 기나긴 남루한 삶의 과정인 것이다.¹⁶⁾ 서술자는 다소 위악적으로 때로는 천연덕스럽게 이런 연애를 중계한다. 영석의 애무를 “맨살을 탈곡기처럼 가차없이 털어내리듯이 비벼댄다”(상, 86면)라고 표현함으로써, 영석의 사랑이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가학적 욕망임을 의도적으로 강조하여 전달한다. 그러나 서술자는 영석의 이 가학적 태도를 비난하지 않는다. 20대 초반의 남성들이 여성의 육체를 성급하고 거칠게 다루는 이 가학성은 오히려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서투르게 행동하는 미성숙성의 표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아가 정조관념에 얽매어 성적인 것들을 사랑의 행위로서 인과적으로 즐기지 못하듯이, 영석의 이 가학성도 남성인 영석이 얽매어 있는 ‘정조를 빼앗는다’는 죄의식 때문에 성을 즐기지 못하는 행위의 일종인 것이다. 연애의 고수로 정체화되는 서술자는 이런 방식으로 미세한 감정의 디테일을 정확하게 포착함으로써 대중적 공감을 얻는다.¹⁷⁾ 서술자는 연애를 낭만화하거나 숭고한 정서로 미화하지 않고, 젊은이들의 연애감정은 성

15) 『별들의 고향』을 평가할 때 대부분 영석을 나쁜 남자로 비판하고 경아의 수난이 영석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 단죄한다. 그러나 영석은 문오 만큼이나 평범한 남자라는 게 서술자의 입장이다. 경아가 망가진 것은 영석 때문이 아니라, 경아와 영석이 내면화하고 있는 젠더 규범이 서로 정반대로 어긋나 있기 때문이고, 이것은 젠더 규범이나 성관념이 구성되는 사회문화적 문제라는 게 작가의 생각이다.

16) 서술자는 경아와 영석의 연애를 이렇게 해설한다.

17)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영석의 이런 태도는 1960년대 남성인물의 한없이 ‘젠틀한’ 면모와 대조적이다. 그러나 몇 가지만 고려해보아도, 이 낭만적 서사의 남성 주인공의 젠틀한 면모는 연애 ‘선수’들이나 가질 수 있는 자질이다. 그런 점에서 경험한 자들에게 주는 공감의 폭은 무척 넓을 것이며, 서술자의 연애와 관련된 현실 감각은 이 사소한 정황의 디테일을 통해 한순간에 독자들을 빨아들이는 효과를 발휘한다.

욕으로 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적나라한 욕망의 실현과정이라는 연애의 실제 과정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리얼리티’에 집중한다.

게다가 서술자는 연애 과정이 젠더적으로 이분화되어 있고, 그래서 더 기막힌 ‘복잡한 상황’이 된다는 것도 가감없이 알려준다. 경아와 영식의 첫 키스를 묘사하는 것에서조차 ‘남만’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남성은 “눈을 꼭 감고 진지하게 사랑이라 믿으며 여성의 육체를 빼앗듯이 탐하고, 여성은 남이 볼까 불안한 시선을 굴리느라 눈을 똑바로 뜨고 빨래처럼 처져서 난간에 기대인 채 키스를 한”(상, 84면)다. 남성은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주체이지만, 그리하여 연애의 주체가 되고 있지만, 여성은 연애가 성의 영역으로 진전되는 순간, 연애의 타자가 되고, 남자의 연애를 수행하는 파트너일 뿐인 위치로 전락한다. 연애는 섹슈얼리티가 부각되는 순간, 남성만의 일로 젠더화되는 것이다.

서술자는 연애가 남성만의 일로 젠더화되는 구체적 상황을 알려줌으로써, 이 과정에서 연애는 여성에게 원하는 일이기보다는 상처받는 일일 수밖에 없다고 자연스럽게 알려준다. ‘연애’는 여성에게 즐거운 일이 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영식이 이런 과정을 연애라고 믿는 것처럼, 경아도 역시 즐겁지 않은 이런 과정을 연애라고 믿는다. 반면에, 서술자는 스스로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고 확신하는 일들이 그저 사랑을 핑계로 이루어지는 욕망 충족과정일 수도 있다는 분석에 이르고자 한다. 청년들의 연애는 숭고한 사랑의 판타지를 부추기는 담론들에 싸여 있지만, 실제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는 연애의 남루한 심리와 행동들은 ‘숭고한 사랑’의 판타지와는 별 접점을 찾기 어렵다는 게 서술자의 생각이다. 서술자는 연애를 남성이 성욕을 채우는 일로 나아가는 남녀의 만남일 뿐이라고 찬찬히 미세한 심리적 정황들을 제시하면서 설명해주듯이 이야기를 전개해나간다.

한편, 서술자는 남성이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랑’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여성이 목숨처럼 여기는 정조란 또 무엇일까도 동시에 근본적으로 따져보라고 제안한다. 마치 청년남녀들의 연애와 일상사를 조곤조곤 짚어보고 헤집어봄으로써 행동으로만 드러난 것들의 의식적, 혹은 내면적 실체를 총체적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남녀탐구생활’의 발

상을 접하는 듯하다.

사내에게 몸을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세상에 태어나 국민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나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서, 그가 요구하는 것이 육체일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물론 많은 영화와 소설 속에서 사람들은 사랑이 무르익으면 서로의 옷을 벗어버린다. 당연한듯이 서로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서로의 특징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합쳐버린다.

모든 여자에게 최초가 있듯이 모든 남자에게도 최초가 있다. 그러나 이 최초의 행위엔 뚜렷한 표시가 없다.

시트를 더럽히는 몇 방울의 출혈, 혹은 싸구려 창녀에게 돈을 주고 산 모멸감 뿐이다.

그것이 그토록 조바심과 조바심, 초조심과 인간힘 속에 행해진 정사 끝에 얻어지는 것이라면 너무도 어이없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옷을 벗는다. 그것이 최초이자 최후의 승부이거나 한 듯이.

경이가 영석의 손에 이끌려 호텔의 방까지 들어갔다 나왔을 때 우선 위기는 면하고 말았다는 한 편의 안도감과, 내일은 또 어느 골목을 헤매고 있을 것인가 하는 또 한편의 조바심으로 무언가 불안하고 초조한 심정이었는데, 그렇다면 여인의 정조라는 것은 단지 한 조각의 조바심인지도 모른다.

마치 전염병이 도는 우기의 계절에 콜레라 예방주사 맞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줄을 지어 예방주사를 맞는다. 예방주사를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 예방주사를 맞기까지의 조바심과 불안은 잠깐, 오히려 이미 맞은 축들은 언제 내가 예방주사의 아픔을 걱정하고 있었느냐는 듯 밝은 표정으로, 아직 못맞고 우울하게 열을 지어 서 있는 후미의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차례가 오면 팔을 들이대고 주사를 맞아야 한다. 그리고 조그마한 열병을 앓을 것이다. 그래야만 접종이 되는 것이다. 콜레라에 대해 면역이 되듯 정사가 벌어지고 난 후의 모든 허무, 고뇌, 실의에 대해 우리는 이미 익숙해지는 것이다. (상, 95-96면)

이 시기 많은 여성들은 정조를 목숨과도 같이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¹⁸⁾ 그런데 서술자는 여성의 정조를 예방주사 맞기 전의 상태로 비유한다.

18) 정조를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는 사회담론이 문제라고 하는 인식은 1950년대에도 제기된 바 있다.(김내성, 「정조관념의 비극」, 『여원』, 1957.1, 117면) 그러나 1960년대 여성의 성모랄을 문제삼는 건전사회 건설의 담론 속에서 여성의 자유 논의가 유보되기 시작할 때, 정조관념은 다시 강조되고 여성 통제의 사회

예방주사를 맞으면 모두 잊어버릴 것을 맞기 전에 조바심을 친다는 것이다. 정조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헛된 지킴이라는 것이다.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것으로 신비화되고 신화화된 것을 아무 것도 아닌 헛된 조바심쯤으로 치부해버리는 서술자의 태도를 독자들은 어떻게 보았을까? 여성들의 정조관념에 딱혀서 연애를 더 이상 진전시킬 수 없는 많은 남성들은 이것 만큼 여성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 논리를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한창 연애에 몰두하고 있는 청년 남성들에게 최인호 소설의 서술자는 구세주나 다름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성숙한 시선은 서술자의 것이지 영석의 것은 아니다. 영석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당연히 헛된 것이지만,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는 꼭 있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 이율배반적인 정조관념을 지니고 있다. 결국 영석은 연애를 했던 여자와는 결혼을 하지 못하는 남성이 되고, 경아는 연애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연애도 결혼도 할 수 없는 여성이 된다. 남녀 모두 결혼 바깥의 성을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정조관념에 동의하기 때문에, 영석과 경아는 영영 결합할 수 없는 관계로 정립되는 것이다. 그리고 경아는 정조를 지키지 못한 모든 책임을 자신이 떠안고 버려지는 상황을 당연한듯이 받아들인다.

서술자는 여성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삶의 논리를 장황하게 분석적으로 설명하며, 당대의 성관념을 논리적으로 검토하면서 따지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다. 영석이 원하는 정조를 허락한 후에 경아는 비로소 그것에서 벗어나서 홀가분한 마음이 되어 영석을 편안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결혼에 이르지 못하고 버림받는다라는 명쾌하고 단호한 결론으로 독자를 이끌어간다.

이처럼 서술자는 일방적으로 독자가 상황에 몰입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지 않는다. 자기 존재를 끊임없이 환기하면서 독자가 개입할 수 있는 틈을 주는 방식으로, 이야기에 몰입하기 보다는 이야기를 해석하는 서술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한다. 서술자는 징검다리를 놓듯이 상황을 인과적으로 연결해가면서 ‘대화적’으로 서술한다. 이 대화적 서술에서 독자는

자신의 상황과 내면을 비교분석하면서 서술자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이다. 이렇듯 독자는 서술자와 대화하는 사이에 자기 스스로도 잘 해명하지 못하는 연애의 상황을 점차 알아갈 수 있게 된다. 서술자의 독자 소통 감각은 ‘연애’를 ‘지식’으로 소통하는 동력이 되는 것이다. 『별들의 고향』의 대중성은 일차적으로는 이 서술자의 존재와 성격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듯 서술자의 개입이 독자의 작품 몰입을 막고 독자 스스로 서술자와 대화적 관계에서 이야기를 객관화시키고, 연애를 지식으로서 수용하도록 이끌어가는 서술양상은 군데군데서 서사적 역할을 수행한다.¹⁹⁾

나이가 중년으로 막 접어들 때의 남자 마음 속엔 이상스럽게 젊음에 대한 향수감이 고개를 드는 법이다./ 그래서 회사의 개인비서는 가끔 불란서 제 고급 향수를 사장님에게서 선사받는 때가 왕왕 있는 법인 모양인데, 그것은 그 나이 많은 사람이 무슨 음흉한 계획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자기의 퇴색해가는 젊음을 젊은 여자와 동등하게 서봄으로써 재인식해보자는 행동에 불과한 것이었다./ 중년의 남자들은 대부분 주착이 없다. 여자가 새로운 모드의 웃을 입은 여자를 뒤돌아서가지 쳐다보듯 중년의 남자들의 눈은 여자의 곡선을 붙들고 놓치지 않는다./ 열이면 열 손버릇이 나빠서 점심 시간에 다방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면서도 레지 아가씨의 엉덩이를 만지고 싶어 안달을 한다./ 그 뿐인가 하면 공연히 바람이 들어서 회사에 있는 미스 아가씨들에게 중매를 든다고 열심히 하기도 하고, 엘리베이터 곁에 게 이봐 퇴근시간이 언제지. 퇴근하고 우리 영화 구경 가자구, 어때 하는 따위의 제의를 남발하게 마련인 것이다./ 그들은 대부분 이미 능구렁이가 다 되어서 여자는 어떤 말을 해주면 좋아하는가 하는 것에 도가 통해 있게 마련인 것이다./여자들은 새롱 맞춘 옷이라든가, 예쁨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면 대부분 좋아하는데. 이런 약점을 잘 알고 있어서 중년의 남자들은 은근히 칭찬으로 회사의 아가씨들에

19) 이 서술자의 역할이 경아가 만나는 남자들의 이야기에서 한결같다고 볼 수는 없다. 작가가 가장 잘 알지 못하는 중년 남성의 세계는 경아와 영석의 연애처럼 서술자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중계하지 않는다. 이야기는 주로 경아와 만준의 대사를 중심으로 사건에 따라 전개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문오의 이야기에서는 다시 서술자의 영향력이 커진다. 그렇지만 영석의 이야기에서만 큰 절대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서술자는 청년들의 연애 심리에 정통해있으며, 서술자의 역할은 주로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서술자와 대화하는 독자의 상황은 주로 청춘남녀의 연애와 관련될 때이다. 서술자의 서사적 의미에 따라 작가가 관심있게 전달하려고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별들의 고향』은 청년들의 연애로서 드러나는 청년세대가 처한 삶의 문제를 문화적으로 통찰하는 서사이다.

게 「좋은 과장님」이라는 별명을 「멋장이 아저씨」라는 별명을 듣고 싶어한다/ 그런 심리는 아침 저녁 어쩐지 일어나면 피곤한 것 같고 정력제단 알약을 매일매일 먹어도 어쩐지 전만은 못한 것같은 기분에 더구나 집에는 비대해진 아내가 버티고 앉아 있고 일요일이라야 소파에서까지 낮잠만 자려들고 재미도 없는 텔레비전에서 서부영화를 보고, 아이들은 아버지라는 낯선 사내를 슬금슬금 피하면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란 존재는 하품만 하고, 술만 마시는 족속이다라는 생각으로 경계를 받고, 아내에게선 앞집엔 냉장고를 샀는데 당신은 뭘에요라는 소리에 주눅이 들린 중년의 남자들이 젊은 아가씨들에게 좀 주막없는 소리를 했다고 해서 인색하게 굴 필요는 없는 것이다. …… (략) …… 얘기가 이상한 데로 흘러갔지만 어쨌든 경아가 그 사내에게 테스트 당한 것은 어느 봄날 회사에서였다.(상, 179-181)

이 인용문들의 서술자 역시 뚜렷한 성격을 지니고 자기 생각을 바탕으로 상황을 논평하면서 독자에게 말을 건넨다.

경아가 만나는 두 번째 남자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다. 경아를 주인공으로 본다면, 경아의 두 번째 사랑이야기이지만, 경아를 매개로 이 시대 연애평속 2탄으로 분류할 만큼 서술자는 또 다른 연애문화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 두 번째 남자를 소개하듯이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 서술자의 이야기 진행방식으로만 보면, 경아는 배경이고 남자들의 연애를 유형별로 살펴보는 ‘연애 설명서’ 같은 느낌을 줄 정도다. 결혼을 하고 중년이 된 남성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여성을 대하며, 연애를 어떤 정서로 기억할까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중년 남성들의 연애를 소개하듯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회사 여직원을 대하는 남성들의 태도나 이발소 여성 면도사에게 면도를 하고싶어 하는 남성문화의 단면을 통해 남성들의 연애정서가 일반적이며 문화적인 것임을 알려준다.

첫 번째 이야기인 영석과 경아의 연애는 영석이가 생각하는 연애와 성, 결혼이 드러나고있으며, 두 번째 이야기인 중년남성 만준과 경아의 연애와 결혼은 중년남성들이 새롭게 꿈꾸는 사랑의 판타지와 여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삶의 회환이 드러나고 있다. 결국 『별들의 고향』은 경아의 이야기로 큰 서사를 구성하고 있지만, 실제 서술자가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세계는 연애하는 남성들의 여성을 향한 욕망과 심리를 통해 남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새롭게 변화하는 연애평속, 사랑, 성, 결혼에 이르는 과정을 남성들

은 어떤 내면적 상황을 거치면서 치루어나가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별들의 고향』은 경아라는 착하고 예쁜 여자의 육체와 팔꿈찬 연애의 세부과정 만큼이나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자의 논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연애에 관한 정보성 이야기들, 그 디테일적 실감으로 대중적 인기를 얻게 된다 할 것이다.

『별들의 고향』의 대중성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연애의 과정이나 그 과정을 채워나가는 행동과 계기가 되는 내면의 의식을 상세히 설명해주는 서술자의 해석적 서술이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지식’으로서 수용되고 공감된 몫이 크다. 편지를 쓰면서 가슴 졸이는 ‘연애편지’ 시대의 연애나²⁰⁾ 미국영화의 애뜻한 사랑과 이별의 키스 장면을 보면서 화려한 낭만적 연애를 감상하는 ‘보는(읽는) 연애가²¹⁾ 아닌, 거리에서 연인과 팔장을 끼고 돌아다니며 영화관에서 손도 잡아보며 감각하는 ‘데이트’를 중심으로 ‘실감’하는 연애의 시대를 맞이하여, 과연 연애의 과정은 어떠한 것이며, 사랑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통해 확인하는 것인가를 상상하도록 이끌어주는 ‘연애 가이드북’인 셈이다.

3. 서술자의 연애문화 분석 노하우: 1970년대 안에 1960년대 있

20)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3 참조

21) 보는 연애란 영화를 보듯이 하는 연애라는 뜻은 아니다. 1950년대 한 잡지의 토막글에 드러난 1950년대 사람들의 연애에 대한 생각에서 따온 것이다. “서양 사람들의 풍속 습관이나 사회조직이 모두 연애하기 좋은 환경을 이루어 주기에 연애의 이야기나 문화가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공감되는 방식으로 소통되지만, “우리에게 조용히 거닐을 산보로도 많지 않고 기껏해야 다방에 앉아 주위의 못 시선을 받으며 어색한 품으로 얘기나 주고받을 뿐이다. 이래서야 첫째 기분도 나지 않는다. 서울 같은 큰 도시에서는 또 괜찮다고 하자. 지방 소도시로 가면 연애의 찬스는 더 줄어들고 환경도 나빠져 농촌 같은 데서는 대중잡지에서나 꿈 이야기처럼 연애를 읽는 것”(『여원벤처』, 『여원』, 1957.4, 269면)이라고 연애를 자기 일이 아닌, 관람할 수 있는 일로 여긴다는 말이다. 이것은 1950년대 대다수 평범한 일상인들, 특히 젊은 여성의 연애 인식이었을 것이다. 매체나 담론으로 떠돌아다니는 연애의 이야기를 보거나 읽는 것이지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자기 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연애편지이다.

다

- 『선데이 서울』(1968),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1966)의 문화와 1970년대 청년

『별들의 고향』의 서술자는 청춘남녀의 연애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면서 경아와 영석(또는 경아와 만준)의 연애를 상세히 증례하고 있지만, 진실한 사랑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자꾸만 어긋날 수밖에 없는 이 남녀의 연애가 무슨 문제를 안고있는가를 진단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서술자는 영석이 경아와 헤어지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찾아간 영석의 친구 동화를 통해 알려주고 있듯이, 영석이는 ‘사랑’을 한 것이 아니고, 경아 역시 사랑을 하기에는 너무 착하고 아름다운 여자여서, 이들이 사랑은 어긋날 수밖에 없다고 결론짓는다. 결국 영석은 너무 세상을 알아버렸고 경아는 너무 세상을 모르는 속백인 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연애를 하는 파트너가 되기에는 이 남성과 여성이 젠더적으로 너무 다른 사랑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서술자(동화)의 분석이다.²²⁾

사랑은 젠더적으로 철저히 다르게 관념화되어 있다. 즉 소설은 자연스럽게 당대 연애문화를 구성하는 두 주체인 여성과 남성의 젠더 경험과 젠더 정체성이 서로 결합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만남을 유지할 수

22) 영석의 친구 동화의 존재는 서술자가 ‘강림’한 듯 착각할 정도로 서술자와 비슷한 태도로 영석에게 말한다. 영석이 경아와 헤어지는 방법을 상의하기 위해 찾아간 동화는 영석의 이기적인 태도를 비난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 경아를 착하고 순수한 여자라고 말한다. 영석을 나쁜 놈이라며 영석의 마음을 철저히 해부하기도 하지만, 영석의 마음을 돌리는 따위의 선도하려는 태도를 취하지는 않는다. 이 인물의 선도자가 아니라, 해설자로서의 자질은 최인호 소설의 성격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이다. 최인호 소설의 서술자가 문화연구가인 듯 연애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심리를 꿰뚫고 있다하더라도 인물을 계몽하고 선도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나아가 사랑은 감정이기에 변하는 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연애관을 지닌 서술자이다. 인간의 한 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파악해내내 집중하는 서술자이다. 그리고 서술자의 이런 인간관은 인물 내면의 심층에 작용하는 문화적 요인을 해명할 수 있게 한다. 경아를 버리는 영석의 마음은 젠더적으로 이원화된 당대 연애문화 탓이 더 크지, 단지 개인의 탓은 아니라는 인식이 도달할 수 있는 힘은, 서술자의 이런 인식에서 나온다. 서술자의 이런 면모는 동화라는 인물을 통해 성격화되어 있다.

없다고 분석한다. 『별들의 고향』은 연애문화를 세세히 설명해주는 가운데, 남성과 여성이 근대를 통과하는 과정이 어떠했는가까지도 추적해 보여준다.

경아와 영석(또는 만준과 경아, 문오와 혜정, 경아와 문오)이로 대변되는 1970년대 연애 당사자들의 이 어긋남은 연애를 상상하고 행동하게 하는 사랑과 관련된 ‘관념’이 작용한 것일 텐데, 서술자는 끊임없이 이들의 행동과 심리를 통해 그런 관념의 실체, 내면화된 문화를 분석하는 것까지 광맥을 찾듯 파고들어간다. 서술자의 중계적 서술이 지식으로 소통될 수 있는 것은 이 문화분석적 태도 때문이며, 그런 서술 속에서 강력하게 독자를 사로잡는 설득력 때문이다. 서술자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가 나서서 그 행동이나 심리의 계기를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연구하고 분석해낸다. 서술자의 논평은 복잡한 문화 현상을 풀어낸 연구자의 분석처럼 근본적인 지점까지 파고들어간 전문성을 지닌다. 즉 최인호 소설은 정조관념을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로 계몽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 최인호 소설은 당대의 청년/대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연애의 문제를 그 내면의 상황에까지 파고 들어가 연애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공문화한다.

창녀와의 하룻밤으로 연애를 대신하던 상경한 촌놈들의 여성편력으로서의 연애가 아닌, 청년/대학생들이 여대생과 연애하고 결혼하는 이야기는 여대생이 급증한 이 시기 대학생 연애의 중심이었다. 여대생과 연애하는 것은 남성들이 꿈꾸는 가장 동경어린 세계였다.²³⁾ 그런데 연애와 성을 하나의 과정처럼 인식하고 있는 남성과 달리 여성들은 연애와 성을 전혀 다른 것으로 인식했다. 그렇지만 여성과 남성 모두 결혼의 조건으로서 여성의 ‘정조’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연애와 성과 결혼은 하나의 실에 꿰듯이 연결되어 있어야 자연스러운 것인데도, 서로 엇갈려 얽힌 상태로 인식함으로써 복잡한 갈등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이 시대 청년들의 삶이었고, 기학/피학의 관계망 안에 여성도 남성도 예외없이 사로잡혀 있었다.

따라서 1970년대 초반의 청년/대학생 남녀들은 연애를 하고자 하면서도 정조관념에 얽매어 사랑도 결혼도 실패하는 불행한 일상을 꾸려가기가 다

23) 『별들의 고향』과 같이 1970년대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겨울여자』는 이 청년/대학생의 여대생 판타지가 그대로 재현된 경우이다.

반사였다. 과연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며, 어디서 연유한 것인가? 그렇다면, 경아와 영석이의 젠더 정체성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 당연히 가장 궁극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최인호는 독자대중과 소통하는 심정으로 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의 근원까지 탐색하고 독자들에게 자기의 분석을 조리있게 전달해준다.

그때, 만약 당신이 당신의 정조를, 그리고 몸을 던져서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져, 새로운 남자에게서 사랑해본 적이 있는가고 물음을 받았을 때 당신은 무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당신은, 현명한 당신은 아마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여자인 그대는 자기의 과거를 얘기해서는 아니된다./ 남성에게 있어서 여자의 편력은 어느 정도 혼장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성에게 있어서 과거는 그녀가 숨겨야 할 일급 비밀인 것이다. 가령 남자가 감언이설로 속이려 든다고 할지라도 현명한 그대는 목비권을 행사하여야만 할 것이다./ 요즘 남자들은 자기가 사귀는 여인이 자기를 속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처증적 증세를 대부분 가지고 있다. 열이면 열, 모두들 자기가 사귀는 여인의 과거에 대해서 전전긍긍한다. 예리한 민완형사의 눈빛을 번뜩이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몸 어딘가에 낫선 사내의 지문이 남아 있지 않은가 하고 눈들을 부라리고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미안하게도 요즘 여자들은 모두 조금씩은 상해 있다./ 정신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썩은 행대를 피우고 있다. (상, 221-222)

서술자는 여성의 행동을 분석적으로 자세히 해석해주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체화된 여성들은 자유연애를 통해 주체임을 자각한다. 학교에서, 사무실에서, 공원에서, 비어홀에서, 또는 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남성들 중에서 스스로 선택해서 연애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는 사회에서 근대적 주체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경아는 그런 주체로서 남성들과 연애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하는 평범한 여성이다. 그런데 연애는 할 수 있지만, 정조를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연애는 만나고 커피 마시고, 영화를 보고, 손을 만지는 것까지만 해야 하는 것이다. 그 이상은 연애가 아니고 일탈이다. 따라서 경아가 연애하는 1972년 시기의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사랑은 화려한 ‘첫 키스’의 기억을 간직한 낭만적 사랑이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연애문화는 점차 자연스러운 남녀의 만남을 문화적으로 용인하는 방식으로 변화해간다. ‘데이트’가 실제로 남녀의 연애문화

를 상징하게 되었고, 결혼의 조건으로도 ‘중매 반, 연애 반’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정도로 연애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되었다. 1970년대의 여성들은, 적어도 도시여성들은²⁴⁾ 누구나 사랑을 꿈꾸고 ‘데이트’를 통해 실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연애는 화려한 키스의 기억으로만 완성되어야 한다. 그 이후의 과정은 ‘첫날 밤’의 의식으로 연기되어, 결혼식을 통해 완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경이는 이런 연애 관념을 갖고 있는 평범한 여성이었으며, 1960년대 베스트 셀러의 목록은 여성의 낭만적 사랑을 둘러싼 관념이 전사회적인 관심사였음을 보여준다.

1960년대 출판계의 화제작 중에는 김형석의 『영원과 사랑의 대화』를 비롯하여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 여대생 작가 박계형의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들』과 같은 순수한 사랑의 이야기가 ‘이례적’ 판매기록으로 남아있다.²⁵⁾ 특히 김형석과 박계형은 일기와 같은 고백의 형식으로 감상적인 연애 감정을 기록한 글로서 연애 서사로서 각광을 받았다. 이 연애 감정의 기록은 11세 소년의 수기인 『저 하늘에도 슬픔이』와 함께 슬픔을 미화화하는 감상주의로 대중문화의 흐름을 주도한다.²⁶⁾

김형석과 박계형의 연애서사는 주로 완벽한 아름다움을 상상하는 ‘감정’을 상품화하는 방식으로 남성상을 주도한다. 즉 이 연애서사에서 감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감정은 완벽한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남성상을 통해서 생겨나는 감정이다. 남성인물을 순수하고 완벽한 인물로 영웅화시키는 방식을 따름으로써, 여성의 사랑의 마음을 희생적으로 설정하여 숭고하게 미화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감정은 여성의 것으로 젠더화된다. 즉 완벽한 아름다움을 구현한 남성상을 통해 구성된 감정의 서사이기에 그것을 소비하는 것은 여성인 것이다. 이 ‘감정’의 소비구조 속에서 여성은 낭만적 사

24) 1970년대까지만 해도 농촌인구는 지속적으로 도시로 유입되었으며, 청년남녀들의 이농현상은 농촌 사회의 공동화현상으로서 사회적인 이슈가 될 정도였다. 이로 인해 도시와 농촌은 문화적으로 격차가 컸고, 특히 여성들의 연애를 터부시하고, 정조관념을 강조하는 경향은 농촌이 훨씬 심했다. 데이트 문화는 도시 문화일 뿐이었다.

25) 이임자, 『한국출판과 베스트셀러:1883~1996』, 경인문화사, 1999 참조

26) 이임자 위의 책 참조

랑의 판타지를 완성한다. 1960년대 여성의 사랑관은 이런 독서 과정 속에서 구체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²⁷⁾

1960년대 여성은 아직 공교육 장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 있지 않았다. 이제 문맹에서 벗어나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된 여성 인구가 절반 이상이었을 것이다. 이 여성들은 1960년대로 들어서면서 점차 독서 시장에 진입하였고, 공교육 장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글을 배우는 과정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었다. 1960년대 출판시장의 확대는²⁸⁾ 이렇게 문맹에서 벗어나 글을 배우는 것과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초급 수준의 독자층으로 인한 비율도 높았을 것이다. 1960년대 여성독자는 이런 초급 독자의 비율이 막대했을 것이고, 연령을 불문하고 이제 막 글을 읽을 수 있는 독자들은 지식으로서 감상적 연애물을 읽을 거리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 상품화된 ‘감정’은 완벽한 이름다움을 구현하는 남성상이기에 연애를 꿈꾸고 결혼을 앞둔 많은 여성들의 판타지를 자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²⁹⁾ 이 사랑의 서사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주인공이지만, 완벽한 이름다움을 구현하는 표상은 남성이기에 상품적 가치는 남성을 향한 감정이 되며, 여성을 중심으로 한 젠더적 사랑관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다.

경이는 전적으로 이 연애관을 내면화한 여성이다. 문오가 사랑하는 대학 후배이며 약사가 되어 약국을 경영하는 여성인 혜정도, 경이와 전혀 다른 학력자본과 문화자본을 겸비한 엘리트 여성이지만, 연애관은 경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영석이가 정조관념을 종교처럼 신봉하는 경이와 성관계를 갖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 치루었듯이, 문오는 혜정의 연애와 결혼을 결정짓는 사랑, 성, 결혼의 복잡한 미로를 뚫지 못해 결혼은 말할 것도 없고 연애도

27) 이 책들의 판매기록이 당대 독서인구와 비교해서 워낙 두드러지기 때문에 주 독자층 대부분이 이 책을 읽고 책의 서사와 교류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28) 배노필, 『베스트셀러의 문화적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 1999 참조

29) 박계형 소설의 낭만적 사랑의 서사는 여성들의 통속적 판타지로 일반화할 수 없는 당대적 맥락이 있기도 하다. 독서는 개별적인 과정을 거쳐 실현되는 것인 만큼, 이 당대적 맥락 속에서 갖는 개별적 체험은 여성들의 실제 삶의 사실을 환기하는 ‘디테일’적 요소들을 분석하는 가운데 해명될 것이다.(조은정, 『1960년대 여대생 작가의 글쓰기와 대중성』, 『여성의 글쓰기와 여성지성의 창출』, 여성문학학회 2010년 가을 학술대회 발표문 참조)

하지 못한다. 문오는 혜정을 만나고 나서 항상 열패감에 휩싸인다. 서로 좋아하면서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혜정의 연애관 앞에서 혜정도 문오도 똑같이 연애를 성사시키지 못한다. 그렇지만 연애도 하지 않았기에 정조를 지킨 혜정은 경아처럼 망가지지 않고 온전하게 자기를 보존한다. 1960년대 베스트셀러의 연애는 수많은 여성들이 연애관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연애는 아니었다.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은 이 현실의 문제를 날 것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연애의 날 것 그대로를 파악할 수 있는 서술자의 ‘안목’이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경아는 연애를 했지만, 그것 때문에 진짜 연애를 못한 게 되었고, 혜정은 연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연애를 계속 꿈꾸고 상상할 수 있는 여성으로 남는다. 그렇지만, 이 여성들이 내면화하고 있는 연애 관념을 접어두고 생각할 때, 경아는 연애를 했지만, 혜정은 연애를 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이 논리적 역설은 『별들의 고향』의 남녀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연애의 현주소이다.³⁰⁾ 1960년대 내내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연애 서사들을 매개로 여성들이 내면화했던 ‘감정’으로서의 연애관은 연애를 할 수 있게 하기보다는 생각만 하도록 만드는 허구적 관념으로서의 ‘연애’인 것이다.

반면에, 남성들은 어떠한가?

1960년대 출판계의 이례적인 사건 중 하나는 무협지의 출현이다. 김광주의 변안소설 『정협지』가 신태양사에서 1962년 출간되는데, “당시로서는 생소하던 무협소설이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자 김광주는 66년에는 동아일보에 『비호』를, 이어 지방신문에 『사자후』, 『흑룡강』 등을 연재”³¹⁾하여 인기를 이어간다. 이 무협지는 청소년부터 성인남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독자층을 형성하는데, 주로 성장기 남성들이 통과의례처럼 거처가는 독서목록

30) 『별들의 고향』 전체에서 문오와 경아의 관계가 가장 ‘연애’답다. 이들은 제도나 관념의 간섭없이 정말 자유롭게 서로를 인정하고 안아내는 관계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규범적 시선을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일탈적인 관계이다. 『별들의 고향』의 연애는 이 두 사람의 자유로운 관계가 ‘사회’화되지 못하는 ‘부유상’을 통해 연애가 불가능한 시대의 진상을 해부하는 소설이다. 따라서 문오는 이 소설의 주인공인지도 모른다. 연애와 관련된 삶의 문제는 문오를 통해 전면적으로 펼쳐지기 때문이다.

31) 이임자, 앞의 책, 179면.

으로 꼽힌다. 성과 검술을 기본 골자로 하는 무협지의 서사는 남성적 판타지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1968년 창간된 주간지 『선데이 서울』은 남성의 성과 연애를 골자로 하는 남성 문화 형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잡지이다.

창간호를 내자마자 매진이 되어 10만부가 팔려나갔다는 『선데이 서울』은³²⁾ 각종 화보가 이전 잡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정적이고 자극적이다. 연애와 관련된 상상은 반드시 성적인 것으로 전개되는 연애문화가 이런 주간지 담론들을 통해 가속화된다.

『선데이 서울』은 화보부터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시각을 자극한다. 한 면 가득 미국영화 여배우의 상반신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남성이 가슴에 저돌적으로 키스하는 장면이 크로즈업 된 화보를 비롯하여 시각을 자극하는 수위가 한결 높아졌다.³³⁾ 일단, 이 화보 만으로도 이전의 어느 잡지보다도 ‘옛보가’의 시선을 끌고도 남을 정도다. 『선데이 서울』은 “텍스트 가운데 압권이자 성에 관한 이미지, 지식, 상상력 등의 보고(寶庫)였”³⁴⁾다고 회상될 정도로 당대 남성들의 성적 상상력을 새롭게 자극한 텍스트였다. 게다가 주말의 개념에 상응하는 ‘여정’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남성들이 낯선 이국 땅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이국의 성문화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해방감으로 연결짓기도 한다.³⁵⁾ 남성이라면 누구나 자기들의 이야기를 새로운 감각과 새로운 이미지로 자유롭게 화려하게 펼쳐놓는 이 잡지를 탐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이제 남성들의 성문화는 새로운 매체환경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셈이다.

그렇지만 『선데이 서울』은 ‘위켄드’, 주말 개념을 도입하여 여가문화를 이끌어내고자 했으며, “멋”, “감미로운 내용”, “아기자기한 이야기 거리” 등이 여가를 채우는 세목으로 채택된 잡지였다. 당연히 이 잡지의 성격에 맞추

32) 김경연, 70년대를 응시하는 불경한 텍스트를 재독하다 - 조선작 소설 다시 읽기, 『오늘의 문예비평』, 2007.11 참조

33) <화보>「로마를 위해 싸우다: 오손웰스」, 『선데이 서울』 창간호, 1968, 75면.

34) 이성욱, 「『선데이 서울』의 색기발랄함에 빠지다」, 『쇼쇼쇼 김추자, 선데이서울 게다가 긴급조치』, 생각의나무, 2004, 86면.

35) 『선데이 서울』 창간호, 58면 참조

기 위해서 남성의 성은 중요한 항목이지만, 여성문화, 가족문화를 비롯하여 주말, 또는 여가 개념을 연결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획기사들이 다루어진다. 이 기사들은 물론 여성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배치되고, 여성이 상업적인 퇴폐문화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사회문제로서 쟁점화하는 경향이 강하다.³⁶⁾ 성은 중요한 이야기의 발원지로 발견되지만, 젠더적으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담론화되어 성적체성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 남성들의 성욕은 자연스러운 본능의 발현이어서 거리의 여자를 사거나 여자를 강간하는 방식으로 ‘남성’ 정체성을 과시하는 남성의 성문화가 인정되는 반면, 정조관념은 나날이 강화되고, 현모양처가 꾸러가는 가족관념은 스위트 홈의 표상을 입고 여성들의 낭만적 사랑과 결혼 판타지를 부추긴다.³⁷⁾ 여성과 남성은 하나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파트너이지만, 『선데이 서울』의 여성과 남성은 연애하는 남녀가 성을 같이 나눌 수 없게 만드는 담론적 계기를 제공한다.

남성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여성들과 성을 나누고, 결혼은 ‘첫날 밤’의 판타지를 안고있는 ‘정상’적 여성과 하는 식의 성과 결혼이 어긋나는 ‘연애의 시대’에 경아와 영석, 혹은 혜정과 문오, 혹은 경아와 문오, 그리고 상처한 남자 만준과 경아가 연애를 한다. 『별들의 고향』은 이 여러 가지 문화적 계기들이 얽혀서 꼬이리를 들고 청년 집단의 세대적 삶의 문제로서 현현하는 실상을 ‘연애’를 통해 해부한 것이다.³⁸⁾ 서술자는 1960년대 대중문화를 통해 젠더적으로 정반대로 관념화된 성문화의 평행선을 가로지르며 만나고 갈라지는 여성과 남성의 감정의 미로를 미세한 결까지 헤집어 해석하는 문화분석적 태도를 보인다.

36) 산부인과의 낙태시술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기사는 미혼여성들의 문란한 성생활이 불법 낙태를 더욱 조장한다는 방식으로 담론화된다. 사회문제가 여성의 도덕성 문제로 귀결되도록 담론화되는 경향이 있다. 『선데이 서울』 창간호.

37) 남성들의 여정을 다룬 기사나, 남성들이 주 고객인 스트립쇼 업소의 댄서를 취재한 기사는 남성들의 성문화를 공론화하여 남성의 일탈을 당연한 것으로 구성하는 반면(54-55면), 인기있는 여배우가 남편을 내조하기 위해 결혼과 동시에 은퇴한다는 기사를 사회적 미담으로 다루는 기사는(8-9면) 남성과 여성의 젠더 규범을 전혀 상반된 방식으로 재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38) 김병익, 「1970년대 신문소설의 문화적 의미」, 『문화와 반문화』, 122-123 참조.

1969년 『주간여성』 창간호에 연재된 김승옥의 『보통여자』 역시 이 어긋난 화살표의 중층적 남녀관계를 그대로 재현한 연애서사로서 『별들의 고향』이 시작되기 직전 청년들의 연애서사의 면모를 보여준다. 여대생 출신의 정숙한 여성과의 결혼을 앞두고도 여관방을 전전하며 직장 동료인 여성과 화려한 성관계를 즐기던 남성인물은 자신의 성생활을 알아차린 약혼녀 수정의 반응을 접하면서,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결혼에 준하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저 개인들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로 진입하는 일이라는 것을 자각한다.³⁹⁾ 이 남성은 악한도 영웅도 아닌, 그저 평범한 남성이라는 점에서 당대의 젠더 정체성을 성찰하게 하는 매개적 인물이다.

『별들의 고향』의 문오 역시 김승옥 소설의 남성인물과 다를 바 없다. 연애하고 싶고, 결혼을 하고 싶은 약대생 혜정을 두고 있는 미대생 문오는 연애하지는 말은 못하고 창녀에게 찾아가는 게 일상인 ‘평범한’ 남성이다. 미술대 출신이고, 군대도 다녀온 서른 살 어른이지만, 무엇에든 책임을 져야 하는 자신의 나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능력자라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나는 무능력자였다. 내 스스로의 빵을 내 스스로 서른이 넘도록 해결치 못하는 무능력자였다.

나는 한달에 한번씩 우체국에 가서 고향에서 부쳐오는 한달치의 생활비를 타야 했다. 그날이 오면 낮익은 우체국 여직원이 보여주는 야릇한 웃음을 감지해가면서 돈을 받아야 했다. 그 여직원의 눈엔 나를 마치 덩치만 큰 바보로 보는 것이 틀림없을 정도로 경멸하는 기색이 있었다.

돈을 받아 세지도 않고 나설 때면 나는 모든 것이 자신이 없어져서, 하다못해 여직원 앞에서 돈을 셀 수 있는 용기조차 없어져서 주머니에 손을 푸욱 찌른 채 홀로 거리에 나가 거의 다 술을 마셔버리거나, 아니면 시설 좋은 호텔에 들어가서 호텔 보이를 유혹하여 값비싼 여자를 불러 하룻밤 자곤 하였다.(하 48-49면)

나는 그저 누워서 빈둥대고 있을 뿐이었다. 누워서 막연히 혜정의 일을 생각하거나, 언젠가는 혜정을 찾아가리라고 생각하고 다짐하고 있었다.

배가 고파서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으면 부스스 일어나 밥을 먹고, 그리고는 또 누워 천정의 무늬를 세거나 길거리 노점 행상에서 사온 무협소설 따위를 읽곤

39) 김승옥, 『보통여자』, 『강변부인』, 문학동네, 238면.

하였다.

어쩌다 일찌감치 거리로 나오는 수가 있었다. 그러면 햇볕이 눈부시고 무언가 아는 사람을 만날까 죄스러워 주눅이 들곤 하였다. 찬란한 햇볕은 너무 나를 발가벗기고 있어서 나는 늘 햇볕 아래서 부끄럼을 타곤 하였다. 햇볕 아래서 나의 혈색은 너무 정직하게 드러나곤 했다.

나의 낙은 인근 싸구려 삼류극장에서 아침부터 틀어박혀 국산 황극영화를 보거나, 어쩌다 낫 모르는 여인 옆에 앉아서 그녀의 손이나 허벅다리를 만지고 싶어하다가 운수 좋으면 따귀를 맞지 않을 수 있었고, 십중팔구는 육식을 먹거나 모욕을 당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도 부끄럼을 타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곳은 어두웠고 적당한 변소 냄새가, 한달 동안 깔린 내방의 이불에서처럼 눅눅한 습기가 고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할 일이 없어서 구경 온 실직된 철공소 꼬마애와 닮음이 없었다.(하 78면)

문오는 자기 얘기를 한다면서 치부에 해당하는 일들을 별 검열없이 주워담듯이 얘기한다. 스스로 무능력자라고 얘기하면서 자학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을 바꿔보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 부모님이 보내준 생활비를 어렵게 우체국에서 찾아와서는 값비싼 호텔에 투숙해서 비싼 여자를 불러 자거나, 돈이 없으면 허름한 뒷골목 창녀촌에 흘러들어가 여자를 사기도 한다. 오후 늦게 일어나서 삼류극장에서 옆자리 여자의 허벅지를 더듬다가 욕이나 먹고 아파트에서 몰래 앞집 여자들의 생활을 훑쳐보기도 한다. 하루하루 아무런 의미없이 그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랑하는 여인인 혜정에게에는 사랑한다 말도 못하고, 사랑하는 여자에게는 키스 한번 못하면서 몰래 돈을 주고 여자를 사기도 하는 그렇고 그런 평범한 남자였던 것이다. 결혼을 앞두고도 다른 여자와 여관방을 전전하는 『보통여자』의 남성인물과 같은 뿐만 아니라, 결국 경이를 속이고 경이를 망가뜨린 장본인으로 보이는 영석과도 닮아있다. 이 남성들은 대중문화로서 형성된 성문화를 남성문화로서 저항없이 받아들인 평범한 남성들이며, 영리하게 자신을 위장하지 못하는 솔직한 남성들이다.

그러나 저항없이 대중문화의 오락성에 정도되고, 그런 자기를 계산적으로 위장하지 못하기에 무능력하게 살 수밖에 없는 평범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연애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은 여자에게 연애하지는 말도 못하고 창녀를 사는 것으로 위로받으며,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고백을 들으며 무덤덤한

듯 인사할 뿐이다. 여성들이 정조관념에 얽매어 비현실적인 낭만적 사랑을 꿈꾸다가 연애도 못하거나 창녀가 되었다면, 남성들은 『선데이 서울』 식의 성문화에 노출되어 연애를 하면서도 거리의 여자를 사서 성욕을 해설하는 이중적 자아를 구성한다.

『별들의 고향』에서 이 어긋남은 단지 연애평속인 듯이 드러나고 있지만, 문오의 우울과 좌절을 통해 청년 세대의 ‘반세대적’ 의식으로 새롭게 의미화되고 있다. 독자의 공감을 끌어내는 디테일을 포착하여 복잡하게 얽혀있는 내면을 공론화하는 서술자의 독자 소통 감각은, 청년들의 이율배반적인 남성성에 내재된 세대적 정체성을 파고드는데까지 예리하게 작동하는 정치적 감각이다. 당대 문화를 규정하는 지배 담론의 영향력까지도 문화적으로 파악해내는 서술자의 통찰로서 연애를 분석하는 가운데, 그 이면의 근대주의적 거부장 의식을 파악해내는 것이다. 최인호 소설의 대중적 인기가 여타의 대중소설과 다른 것은 이런 정치적인 파괴력까지도 내장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1970년대 청년세대들이 부여안고 가야하는 삶의 무게는 이렇듯 만만치 않다. 이전 시기의 문화적 유산이 허구적 관념으로 내면에 또아리를 틀고 자아를 구성하고 있기에 과부하의 정도는 심할 수밖에 없다. 착하고 때묻지 않은 순수한 여성인 경이는 이런 복합적인 자아를 볼 수 있게 하는 투명한 창으로 역할하고 있으며, 소설의 서술자는 연애평속으로 얽혀드러나는 모든 상황을 분석하고 해명해주는 문화 연구자로서 독자와 공감하고 소통하는 안내자 역할을 수행한다. 『별들의 고향』이 이례적인 상업적 성공을 거둔 것은 경이에 투영된 남성들의 판타지로 설명할 수 없는 더 근본적인 대중적 공감의 영역이 있었던 것이며, 이것은 1970년대 청년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삶의 문제를 속시원히 공론화할 수 있었던 서술자의 문화인류학자 같은 통찰력이라 할 것이다.

4. 『별들의 고향』의 문화적 의미와 민주주의적 상상력

『별들의 고향』은 수많은 해석을 낳았지만, 쉽사리 깰 수 없는 ‘이례적인’ 흥행 기록에 관해서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공감한다. 『별들의 고향』의 대중적 인기는 대중문학의 서사문법을 따른다기보다는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리얼리티에 집중하는 작가의 태도, 즉 독자와의 소통 감각을 지니고서 중계 하듯이 연애문화를 분석하여 ‘지식’으로 전달하는 서술자로 인한 부분이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경이라는 여성인물이 남성 판타지를 적절하게 재현했다는 점을 과소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⁴⁰⁾ 그러나 남성 판타지로서 여성인물에 초점을 둔다면, 오히려 너무 일반적인 대중서사 관습이어서 ‘이례적’이라는 점을 해명하기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최인호 소설을 비롯하여 1970년대 청년 작가들의⁴¹⁾ 대중적 성공은 일반적인 대중소설의 서사관습과는 다른 무엇을 동원해야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은 위악적인 서술자의 대화적 태도 속에 내재된 독자와 공감하는 소통의 감각으로 인해 독자 대중의 삶의 문제를 집약하는 리얼리티를 구현할 수 있었다. 이 감각은 이미 김승옥의 소설을 통해서 대중적 인기로서 확인된 바 있다. 1960년대 최고의 흥행작가인 김승옥은 신문소설의 작가(서술자)가 지닌 독자에 대한 계몽적 태도를 벗어나,⁴²⁾ 독자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소통적 태도를 취한다. 김승옥은 매체를 가리지 않고

40) 육체성과 감각의 소비라는 맥락에서 『별들의 고향』을 해석하는 관점은 가장 일반적인 해석양상이라 할 것이다. (김현주, 『1970년대 대중소설 연구』, 연세대 박사, 2003 참조) 그런데 이는 소설적 효과라기보다는 소설과 영화가 결합될 때 발휘되는 대중문화적 현상으로 평가할 때, 훨씬 설득력을 지닌다. 소설에도 이런 측면이 많지만, 영화와 더불어 증폭되고 전면화된다. 이 부분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설이 독자와 만나서 구성하는 대중문화적 의미는 좀 더 다른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41) 1970년대는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을 기점으로 신문연재 소설 작가로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작가군을 중심으로 신문연재 소설의 작가가 전면 개편되는데, 이들은 청년문화 논쟁과 더불어 ‘청년작가’로 불리었다. 김병익, 최인호, 조선작, 조해일, 「<좌담> 작가와 현실」, 『세대』, 1975.2 참조

42) 1950년대 신문 연재소설의 성격을 염두에 둔 말이다. 1950년대 신문연재소설을 대표하는 정비석이나 박계주가 이런 면모를 강하게 내비치는 작가이다. 신문소설의 독자를 계몽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작가의 태도는 서술자의 성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비석 소설의 서술자가 대표적이다.

독자를 염두에 두고 소설을 쓰는 소설가로 자처하면서 소설을 썼던 첫 세대 작가라 할 수 있으며,⁴³⁾ 최인호는 이런 소설인식 하에 신문연재소설을 쓴 소설가이다.

최인호 소설에서 ‘연애’는 독자와 소통하는 방식으로 채택된 문화풍속이다. 그러나 연애는 단순히 남녀의 연애상황을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문화’로서 다루어진다. 『별들의 고향』은 『바보들의 선언』과 더불어 청년들의 삶의 문제와 내면의 양상을 당대 청년들의 문화로서 문제시한다. 이런 외중에 통기타 반주의 포크송 가수들의 대중음악 문화가 급속히 퍼져나가면서 청년문화 논쟁에 따른 대중적 관심을 촉발시키고,⁴⁴⁾ 최인호는 「청년문화 선언」과 더불어 그 주역이 된다.

전에는 침묵의 대중을 몇몇 엘리트들이 정의를 내리며 주도하였고 이끌었지만 오늘날의 청년문화는 엘리트층을 인정치 않는다. … (략) …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겐 고전이나 권위나 위선 남녀 간의 차별 따위를 인정치 않으려는 집요한 노력이 있고 그 노력의 활동으로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청년문화가 생성되고 있기 때문이다.⁴⁵⁾

문화는 생활 그 자체이지 선택된 개념이 아니다. 문화는 이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의 문화는 소수의 엘리트층을 보고도 다수의 대중들을 예견할 수 있는 하향식(하향식)의 문화였지만 분명히 말해서 오늘날의 청년문화는 침묵의 다수에서

43) 이정숙은 문학의 사회적 기능에 주안점을 둘 때 문학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김승옥의 소설을 작가의 활동이나 문학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해명하고 있다. 김승옥이 매체의 성격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매체의 수용자를 고려하면서 매체의 성격에 맞게 소설을 썼던 점을 생각해 보면, 소설의 사회적 소통 양상을 중심으로 한 이 논의는 김승옥 소설 연구 뿐만 아니라, 소설의 대중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성과라 할 것이다. 이정숙, 김승옥 소설의 소통 양상 연구, 서울대 석사, 2004 참조

44) 1974년은 저널리즘적으로 이슈가 된 청년문화 논쟁으로 인해 청년문화를 중심으로 대중문화가 전면적으로 변화한다. 논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가와 상관없이 청년문화의 상징인 트윈폴리오의 음악은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가장 인기있는 음악으로 자리잡는다. 1974년 청년문화 논쟁은 저널리즘의 부정적 평가로 귀결되지만, 문화적으로 청년문화가 전면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영미, 『대중가요사』, 민속원, 2008 참조

45) 최인호, 『한국일보』, 1974. 4.24, 5면

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상향식)의 문화인 것이다.⁴⁶⁾

최인호는 스스로 청년문화 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솔직하고 정직한 침묵의 대중”의 생활방식으로서 1970년대 ‘청년문화’를 옹호한다. 소수 엘리트의 하향식 문화가 아니라, 다수의 침묵하는 대중의 생활방식을 청년문화, 대중문화로 인식한다. 문화의 개념을 달리 정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인호가 청년문화를 선언한 1970년대 중반의 최인호 소설은 본격문학이나 순수문학(엘리트 문학)과 대립되는 의미의 대중문학 인식에서 벗어나, “침묵의 다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의 문화”로서 대항문화를 상상하고 있었다.⁴⁷⁾ 1972년 최인호의 여러 소설들과 함께 『별들의 고향』은 최인호의 이런 문화적 기획 속에 놓여진 대항적 담론양상인 셈이다. 『별들의 고향』의 위약적이며 풍자적 태도를 지닌 서술자는 엄숙주의적인 지배담론을 부정하고 비이념거리는 태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미적 장치이다.

교양담론은 근간으로 한 엄숙주의는 1950년대 지식인 엘리트 중심의 교양문화에서부터 시작하여 1960년대 문화를 구획하는 핵심적 인식 코드였다.

46) 최인호, 위의 글

47) 대중문학 중에서도 1950년대 신문소설이 이런 이원적 대립구조 하에서 대중문학을 정의되고, 이를 의식하면서 창작되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 신문소설의 사회적 위상에 따라 대중문학적 성격이 더 많이 의식되었을 텐데, 1950년대 신문은 독서인구가 급증하면서 가장 대중적인 독자층을 수용하는 매체였기에 가장 대중의 통속적 취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매체인식이 지배적이었던 듯하다. 1930년대만 해도 신문매체의 보급률이 전국적이라고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신문독자를 문자해독력이 낮은 초급독자까지 염두에 두고 분류하지 않았던 시대이다. 또 작가들도 신문매체라고 하여 잡지 매체와 다르게 소설을 써야 할 것이라고 구별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신문이나 잡지에 따라 소설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점은 1970년대에도 달라지는 점이다. 1970년대 청년작가들 중심으로 신문소설의 작가의 물갈이 되면서, 신문소설은 1950년대의 통속소설적 요소를 어느 정도 벗어난다. 이에 대해서는 면밀한 자료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1970년대로 들어와 신문소설의 독자가 바뀌고 그에 따라 상업성의 내용도 바뀌게 되는 경향은 분명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이 엄청난 흥행 성적을 올렸던 사실은 1970년대 신문소설의 성격이 변화하는 데 직접적 원인이 된다. 배노필은 베스트셀러를 연구하는 가운데 베스트셀러의 성격도 바뀐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1970년대의 독자가 늘어나면서 문학이 독서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데,

일종의 유행처럼 번져가면서 속물주의와 결합할 정도로 상품적 가치를 지니게 되고, 상업주의와 결합하여 여러 가지 문화적 역효과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대중적으로 소통되는 맥락 속에서 ‘교양’은 장식적 기능으로 속화된 경향이 강했던 것이다.⁴⁸⁾ 그렇지만, 이렇게 속화된 대중적 교양담론은 대중 문화를 위계적 관계 속에서 폄하하는 주 원인으로 작용했고, 김승옥이나 최인호의 소설은 이런 교양적 권위를 의식하고 비아냥거리기 위해 과장되게 위약적으로 치장하기도 한다. 김승옥과 최인호 소설의 대중성은 이런 사회적 맥락 속에서 더 증폭되었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최인호 소설은 청년세대가 대중문화의 주체로 부상함으로써 새로운 문화 인식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최인호의 대중성은 그 누구와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당대성을 담고있는 문화적 덩어리로 존재함으로써 사회사적 사건으로 기록된 것이다. 최인호 소설을 계기로 하나의 덩어리로서 드러난 ‘현실’, 『별들의 고향』은 그 실체가 드러난 결정판이다.

『별들의 고향』을 통해 포착된 거대한 현실은 정치적 폭력에 대응하는 저항적 담론 주체로 포괄되지 않지만, 지배담론의 폭력성에는 강하게 반발하는 잉여적이면서도 어디로도 환원되지 않는 다양하게 흩어져 존재하는 ‘개인’들의 실존 현상인 것이다. 1972년의 최인호는 『별들의 고향』을 연재하는 동안 전혀 다른 개인들이 존재하는 듯한 소설들을 쓴다. 자전적 소설인 「무서운 複數」에서 말하듯이 김지하의 『오적』만이 반(反)권위적 진리로 담론화 되는 가운데 ‘황진이’의 서사를 통해서도 반(反)권위적 진리로 가는 복수로서의 개별적 세계를 추구하고자 한다.⁴⁹⁾ 「황진이」 연작과 「전람회 그림」 연작, 그리고 『별들의 고향』이 한 시기에 공존하게 함으로써, 김지하의 『오적』이 구성하고 있는 대항적 세계의 스펙트럼을 ‘현실’적으로 확장하고자 했던 것이다. 1970년대 『별들의 고향』의 판매기록으로 존재하는 개인들은 바로 이 현실을 입증한 셈이다. 문화적 민주주의는 바로 이런 다원적 개인이 인정받는 구조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라면, 1970년대는 문화적 민주주의가

48) 서은주, 「1950년대 대학과 ‘교양’ 독자」, 『현대문학의 연구』, 2010. 2 참조.

49) 김성환은 최인호의 중단편소설과 장편소설들을 서로 유관하게 연결되어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서운 복수」를 해석한 바 있다. 김성환, 「1970년대 대중소설의 욕망 구조 연구」, 서울대 박사, 2009, 122면 참조.

논의될 여지는 충분했다고 보인다.⁵⁰⁾

그러나 이 대중성은 작가를 위협한 경계로 돌아가는 것도 사실이다. 1972년의 최인호는 「황진이」를 쓰고, 「전람회의 그림」 연작을 쓰고, 『별들의 고향』을 연재하고, 자전적 소설인 중편 「무서운 복수(復讐)」도 썼다. ‘유신’의 정치적 폭력이 대학가를 초토화하는 현실을 창밖으로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것도 최인호였지만, 어떻게 하면 여자를 꼬셔볼까 작전을 세우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장발의 청바치 청년도 최인호였으며, 아무런 납득할 이유없이 옷을 벗고 거리를 질주하여 경찰 단속에 걸려 끌려가는 무모함도 최인호였다. 그러나 공적 담론장에서 청년/대학생으로 살아가는 최인호는 하나로서만 ‘주체(의미)’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요받는다. 1972년의 최인호는 이 여러 개로 존재하는 다양한 자기를 문학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관능의 세계에 몰두하는 방법도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여러개인 만큼 복잡하기도 하다. 그래서 너무 빨리 관능의 세계로 정도하는 보수성을 감지한 연구자들은 최인호가 위험한 경계에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⁵¹⁾ 그러나 위험하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1972년의 최인호는 대중문화의 정치적 파괴력을 최대한으로 모아내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후의 자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최인호의 몫이지, 대중문화의 몫은 아닐 수도 있다.

50) 김병익, 「문화적 민주주의를 위하여」, 『지성과 문학』, 문학과지성사, 1982 참조

51) 김현, 「초월과 고문- 한 소설가의 세계인식에 대하여」, 『사회와 윤리』, 일지사, 1974, 한수영, 「억압과 에로스- 1972년의 최인호」, 최인호, 『황진이』, 문학동네, 2002 참조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여원』, 『주간여성』, 『선데이 서울』, 『동아일보』, 『한국일보』, 『세대』, 『문학사상』
최인호, 『별들의 고향 上, 下』, 예문관, 1973.
최인호, 『바보들의 행진』, 예문관, 1974.
최인호, 『맨발의 세계일주』, 예문관, 1974.

2. 논문과 단행본

- 김현, 「초월과 고문 - 한 소설가의 세계인식에 대하여」, 『사회와 윤리』, 일지사, 1974.
김병익, 최인호, 조선작, 조해일, 「<좌담> 작가와 현실」, 『세대』, 1975.2, 148-157.
김병익, 「1970년대 신문소설의 문화적 의미」, 『문화와 반문화』, 1979 122-123.
김병익, 「문화적 민주주의를 위하여」, 『지성과 문학』, 문학과지성사, 1982, 13-24.
김성환, 「1970년대 대중소설의 욕망 구조 연구」, 서울대 박사, 2009.
김현주, 『1970년대 대중소설 연구』, 연세대 박사, 2003.
베노필, 「베스트셀러의 문화적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 1999.
서은주, 「1950년대 대학과 ‘교양’ 독자」, 『현대문학의 연구』, 2010.2, 7-39.
송은영, 「대중문화 현상으로서의 최인호 소설」, 『상허학보』15집, 2005.8, 419-445.
우찬제, 「자전거 타고 바다 건너기」, 『달콤한 인생』, 문학동네, 2002, 309-310.
이정숙, 「김승옥 소설의 소통 양상 연구」, 서울대 석사, 2004
이혜림, 「1970년대 청년 문화구성체의 역사적 형성과정」, 서강대 석사, 2002.
전상기, 「1960년대 주간지와 매체의 위상」, 『한국학논집』 36집, 2008.6 225-258 참조
조은정, 「1960년대 여대생 작가의 글쓰기와 대중성」, 『여성의 글쓰기와 여성지성의
창출』, 여성문학학회 2010년 가을 학술대회 발표문, 37-52.
주창윤, 「1970년대 청년문화 세대담론의 정치학」, 『언론과 사회』, 2006 가을, 73-105.
한수영, 억압과 에로스 - 1972년의 최인호, 최인호 『황진이』, 문학동네, 2002, 295-314.
허수, 「청년문화 논쟁」, 『논쟁으로 본 한국 100년사』, 역사비평사, 2000, 318-324.

3. 단행본

-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3
김병익, 『지성과 반지성』, 민음사, 1974.
김병익, 『문화와 반문화』, 문장, 1979.
김승옥, 『보통여자』, 『강변부인』, 문학동네, 2004.
김창남 엮음, 『김민기』, 한울, 2004.
신현준, 『레논평전』, 리더스하우스, 2010.
이성욱, 『쇼쇼쇼 김주자, 선데이서울 게다가 긴급조치』, 생각의나무, 2004.
이영미, 『대중가요사』, 민속원, 2008
이입자, 『한국출판과 베스트셀러:1883~1996』, 경인문화사, 1999.

Abstract

Introduction to Love Affairs of 'Youth and Choi-Inho's Novel - Focusing on *Homeland Of Stars* -

Lee, Sun-Mi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the reason of increasingly popular choice for 『Homeland of Stars』. Narrator of this text had a sensitive communication power. Regardless of the manly fantasy for the heroine, Gyeong-a, the communicative narrator caught the reality of the 1970s, aroused sympathy. Especially this text was connected with the Korean Youth-Culture in the 1970s. The writer selected the 'Love Affairs'.

Narrator analyzed the situation of love in the youth culture, comparatively. The sound social norm as the 1960s' tradition was engendered friction with the youth in the 1970s. Heroine and heroes didn't have love affairs because of the love culture gender difference. Narrator examined these process and reason as a cultural anthropologist. Therefore, this paper tried to explain that the popular choice for 『homland of Star』 was to accept to the insight of narrator.(Key words : Choi In-ho, 『homland of Star』, youth-culture, sensitive communication power for reader, narrator, love affairs, democracy)

위 논문은 2010년 10월 23일 제35차 대중서사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기확논문으로 발표되었으며, 2010년 10월 30일 학술지에 정식 투고되어 심사를 거쳐 11월 20일 게재가 확정되었습니다.